Entertainment p/20
스물세살 박신혜 이제 시작

하나금융그룹
세계 어느 곳을 가시든 외환은행
외국환부문 1위, 환전부문 1위
KEB 외환은행

'4500원 화들짝' 벌써 담배 사재기

인상논의 가능성에 "세보루 주세요" 민감 반응
대형마트 판매 30% 증가… 공항 면세점도 북적

회사원 박재훈(43·가명)씨는 지난 주말 인근 슈퍼에서 담배를 사려다가 말다툼까지 벌였다. 담뱃값 인상 논의 뉴스에 놀라 평소 애용하는 ○○담배 세 보루를 미리 사두려고 했는데 슈퍼 주인이 "한 보루 이상은 판매할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담배가 있는데도 왜 팔지 않느냐"고 항의했더니 "사재기하는 것 같아서"라는 핀잔만 들어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담뱃값 인상 논의가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사재기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한 보루를 미리 사두면 무려 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은 물론 소매상 점주들 사이에서도 담배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 은평구 한 편의점 판매원은 "평상시보다 담배 판매량이 4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평소에는 거의 없던 보루 단위 구매 손님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담배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꾸준히 감소 추세이던 담배 매출이 인상 논의가 전해진 6일을 전후해 30%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국제공항 면세점 담배 코너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평상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탑승객들까지 담배 구입에 나서면서 계산을 위한 긴 줄까지 등장했다.

◆서민부담 커져 실제인상 만만찮아

하지만 전문가들은 담뱃값이 실제 오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수차례 시도했지만 고소득층보다 서민층에 더 부담이 크다는 논리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담뱃값은 2004년 2000원(국산 기준)에서 2500원으로 오른 뒤 9년째 동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늘 가계에 미치는 충격파가 만만치 않아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며 "수년 후의 담배 가격 인상을 미리 예고해 사재기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국현기자 lenlee@metroseoul.co.kr

강남 한복판 댄스파티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에서 로콘을 스윙댄스 커뮤니티 '관파라댄스'를 주최로 열린 '어쿠다 마주친 스윙댄스' 행사에서 300여명의 춤기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 /뉴시스

www.ust.ac.kr

●2013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국내 유일의
국가연구소대학원 UST와 함께
당신의 꿈을실현 하세요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연구 중심교육

입시설명회 대전 2013.3.6(수), 14:00~ UST
서울 2013.3.13(수), 14:00~ KIST
부산 2013.3.20(수), 14:00~
원서접수 2013.4.10(수)~4.23(화) 18:00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혜택
박사 졸업생 1인당 재학 중 SCI 논문 4.48편 발표
박사 졸업생 1인당 재학 중 1.56건의 특허 출원
졸업생 취업률 82.8%
최근 3년간 Nature, Science, Cell 誌 등에 UST 학생이 주저자로 논문 게재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의사 1300명 면허정지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사 후폭풍… 119명은 불구속기소 등 사법처리

새로운 공무원증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들이 이번달부터 도입되는 새 공무원증을 살펴보고 있다. 새 공무원증에는 대각선으로 태극기의 4괘가 분류색과 회색으로 새겨지며, 사진 크기도 20% 커진다.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 기술도 도입된다. /연합뉴스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300여 명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의사 119명을 포함, 총 124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사법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수사반에 따르면 김씨 등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받은 의사들도 있었다. 적발된 의사 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김씨는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3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반은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여 명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에게 복지부는 조만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은 2009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00여 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규모의 CJ제일제당 리베이트 사건도 남아있어 앞으로 전체 업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효순기자 hs.yoon@metroseoul.co.kr

국민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스포츠클럽 리그
4월 개막!
Sports Club League

2013년 스포츠클럽 리그전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축구, 배드민턴, 야구 등 10개 종목별로 지역예선전이 펼쳐집니다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보험료 10% 오른다

다음달부터 포르테·뉴SM5 등 소유자 부담 커져

다음달부터 자기차량 손해보험료가 최대 10% 올라 소유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1년간 자동차 보험 차량 모델별 등급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4월에 등급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101개 차종의 등급이 바뀌어 국산차 36개와 외제차 17개 등 모두 53개 차종의 자차보험료가 인상된다.

국산차의 경우 포르테 벨로스터 뉴SM5(신형) 알페온 등의 자차보험료가 10% 가량 오른다.

외제차는 주요 차종 대부분의 자차 보험료가 10% 정도 오른다. 아우디 A4·A6, BMW 3·5·7시리즈, 벤츠C·E·S클래스, 도요타 캠리, 재규어 등이 해당된다. 스펙트라를 비롯해 자차보험료가 내리는 차종도 있다.

/장은석기자 unique@

서울 하루만에 23.8도→5.8도 낮기온 역대 최대폭 급강하 서울 낮 최고기온이 23.8도까지 치솟은 9일 오후 반소매 티셔츠와 짧은 바지를 입은 시민들이 명동 거리를 걷고 있는 반면(위) 최고기온이 5.8도를 기록한 10일에는 같은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겨울 옷차림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오늘 키리졸브 시작

北 "최후명령 기다려" 위협

한미 군사합동훈련 '키 리졸브' 시작을 하루 앞둔 10일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여갔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철퇴를'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최후의 전면 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들과 전략로켓군부대들,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들은 최후 돌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며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들도 전투 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통일성전의 포성이 울리면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던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소굴들은 삽시에 불바다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일 "남북간 불가침합의를 폐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채동희기자 elanvin@

두달전 예식장 계약 해지하면 전액 환불

대형 예식장들의 '배짱 영업' 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고객이 결혼식 두 달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예식장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시내 10개 대형 예식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정된 약관에 따르면 2개월 이내면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업체는 이를 제공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금액의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

/박지원기자 pjw@

'알바추노' '타조세대' 씁쓸 신조어 많았다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온라인 국어대사전에 실린다. 국립국어원은 10월 정식 공개하는 위키피디어 형식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인 '우리말샘'에 반영할 '2012년 신어 기초 자료' 보고서를 펴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조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졌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트통령'(트위터에서 대통령처럼 큰 인기가 있는 사람), '스마트폰 계급'(스마트폰의 기종을 성능에 따라 나눈 계급), '디지털 단식'(디지털 매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 '스마트폰 치기'(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나는 일) 등의 단어가 등장했다.

지나친 교육열을 보여주는 '등골 백팩'(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만큼 비싼 책가방), '대전동 아빠'(자식 교육을 위해 대치동에 전세를 얻는 아빠), '에듀푸어'(과다한 교육비로 살기 어려운 사람) 등의 신조어도 많이 쓰였다.

새로운 인간형을 정의하는 단어도 여럿이었다. '돌직구남·돌직구녀'(직설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남녀), '가싶남'(가지고 싶을 정도로 매력 있는 남성), '생강녀'(생활력이 강한 여성) 등이 눈길을 끌었다.

불황이 만들어낸 신조어도 많다. '알바추노'(아르바이트를 하다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을 안 하거나 도망가는 것), '삼포시대'(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시대), '타조세대'(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대책이 없는 세대), '찔러리맨'(취업 후에도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 등은 우울한 시대상을 짚어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오늘의 복코드〉
복코드 이벤트
★ 오늘의 상품 ★
오늘의 "복코드" 찍고!
화끈한 간식 타임!

대학등록금 빰치는 사립유치원비 감사

고가의 원비를 받거나 인상률이 높은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가이드라인을 넘는 과도한 원비 인상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가의 원비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11~15일 감사에 들어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 등의 지원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유아교육법 개정을 앞당겨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 원비를 올리지 못하는 내용의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호기자

주말 전국 26곳서 산불… 필사의 탈출 3월 둘째주 주말 전국 26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10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신화마을의 한 가옥으로 산불이 번지자 주인이 황급히 대피하고 있다. 9일부터 발생한 울산, 포항 등의 대형산불로 임야 112ha가 잿더미로 변했고 33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연합뉴스

교권침해 5년새 64% 증가

훈계하는 교사에게 주먹을 날린 학생, 지각으로 벌점을 부과하자 교장에게 욕두문자를 퍼부은 학부모 등 교권 침해 사례가 5년 만에 6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12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335건에 달했다. 앞서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에 이어 증가폭이 더 커졌다.

특히 폭언·폭행은 2011년 115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37.4% 증가했으며 전체 교권 침해 사례 중 절반에 육박하는 47.2%를 차지했다. /세종=호기자 cjsoger@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법정 스님 열반에 들다
2010년 3월 11일 '무소유'의 승려 법정 스님이 성북동 길상사에서 지병인 폐암으로 세수 79세, 법랍 55세로 입적했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2013년도 한양대학교
해외건설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5기 모집
급속히 성장하는 해외건설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Global 건설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명
해외건설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교육비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참여기관 부담 교육비 35만원

지원자격
건설 사업 분야 경력자, 건설분야 학위 소유자
해외 건설 관련업 종사자

모집인원
계약 및 클레임 전문가 과정 60명
금융 및 사업관리 전문가 과정 60명

모집기간
1차 : 서류전형
(2013.03.04 ~ 2013.03.28)
2차 : 면 접
(서류합격자에 한해 2013.04.06 실시예정)

교육기간
2013.04.19 ~ 2013.12.13
주2회, 6시간 (18:30 ~ 21:30)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hanyangicse.net 참조

문의처
한양대 CM/CIC 연구실 Tel. 02-2281-6526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건설협회

진보정의당 노회찬(왼쪽) 공동대표가 10일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부인 김지선(오른쪽)씨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노회찬 부인 노원병 출마선언 · 부인들 총선 성적표는?

'김근태 바깥사람' 인재근 완승 신은경 전 앵커는 연거푸 고배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부인 김지선씨가 10일 4·24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국민법정이 돼야 한다"며 "누구의 배우자가 아닌 김지선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원병 보선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는 거대권력에 대한 국민 심판의 의미가 큰 만큼 안 전 교수에게 양보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인 부인이 남편의 지역구에 '대타'로 나선 것은 김씨가 처음은 아니다.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남편인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에 출마해 기쁜 승리를 했다. 2004년 총선에서는 사별한 남편(심규엽 전 의원)의 지역구(경기 안성)를 물려받은 김선미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의원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이들 외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표적인 예가 신은경 전 KBS 앵커. 그는 2008년과 2012년 총선 때 남편(박성범 전 의원)의 지역구(서울 중구)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정치권이 정치인의 부인들을 선거에 내세우는 것은 남편의 지역구 조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남편에 대한 동정론을 등에 업고 지지율을 올리기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는 "정치인 부인 여동생 등의 출마는 정당정치 기반이 약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아무개의 부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능력이 가려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grace@

安의 가방 안에 무엇이?

오늘 안철수 귀국 … "출마 메시지 무얼까" 정치권 관심 집중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정국의 핵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안 전 교수의 귀국을 하루 앞둔 10일 정가에서는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4·24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 의사를 밝힌 안 전 교수의 앞날에 따라 정치 지형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이 최대 격전지인 노원병을 비롯해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전국 단위로 확산된 데다 이 권에서 박근혜 정부 초반 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불꽃 튀는 일전이 예상된다.

안 전 교수는 일단 귀국하자마자 재보선을 치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늘었지만 정권 초반 관망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안 전 교수 측은 분석하고 있다.

안 전 교수 측 조광희 변호사는 이날 "간단한 선거가 아니다"며 "귀국 직후 지난 대선에 대한 생각을 포함해 본인의 생각을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노원병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가 이날 출마 선언을 했다. 통합진보당도 독자 후보를 낼 계획이어서 선거는 다자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짙다.

민주통합당은 심경이 가장 복잡하다. 안 전 교수가 독자 세력화에 나서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무엇보다 '안철수 신당'의 출현은 민주당에 위협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반드시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와 안 전 교수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초반 비판적인 여론을 재보선을 통해 돌려보려는 의지가 강하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홍정욱 전 의원과 안대희 전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의 이름도 흘러나온다.

/배동호기자 ivan@metroseoul.co.kr

심각한 국정현안토론회 10일 오후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에서 허태열(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국정현안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첫 국무회의 열린다

장관 13명 임명장 수여 김병관 국방 내일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사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 12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 고위 관계자는 10일 "김 내정자가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을 했고, 현재 안보위기가 심각한 만큼 대통령은 김 내정자를 12일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11일 13명의 장관 내정자를 임명한 뒤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2주만에 갖는 첫 국무회의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외 1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경우 신제윤 차관, 이용걸 차관이 참석해 요건을 갖추게 된다.

또 15일까지 15명 이상의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여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잦아들 전망이다.

/배동호기자

로또복권 제538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7	9	18	32	37	43	12

등위	당첨요건	당첨금액
1등	6개 숫자 일치	1,308,523,103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6,973,083
3등	5개 숫자 일치	1,431,36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02)721-9800, FAX.02)733-15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철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국장 직대 김문중
서울광고센터 02)721-9651.3
부산광고센터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02

비만 환자를 위한 임상 시험 지원자 모집 공고
비만 환자를 위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대상
■ 만 18세~70세 미만
■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 BMI 30 kg/m² 이상이거나,
• BMI 27~30 kg/m² 이면서
다른 위험인자(고혈압 또는 이상지방혈증)를 가지고 계신 분
※ BMI (Kg/m²)=몸무게(Kg) / 신장(m)X신장(m)
■ 임상시험 기간 중 저칼로리 식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분
| 임상시험 참여 기간 7주간 5~6회 방문
| 실시기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임상시험 참여 시 제공되는 사항
■ 16주간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
■ 정기적인 검진 및 임상시험과 관련된 혈액검사,뇨검사 심전도 실시
■ 2회의 체성분 검사 및 복부내장지방측정을 위한 복부 CT검사 시행
■ 전자 혈압계 제공 및 각 방문별 소정의 교통비 지급
■ 영양사에 의한 식사요법 제공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월~금 오전9시~오후5시)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 9층 임상시험센터
■ 연락처 010-4619-1207 / 010-2019-8927

"점심에 가고, 저녁에도 또 가요"
안정적인 매출 얌샘 성공창업설명회 개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8가지 전문점 메뉴군을 보유한 퓨전분식전문점 얌샘이 성공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하루 종일 매출이 끊이지 않는 얌샘만의 경쟁력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는 직영점 시식, 개인별 맞춤상담을 진행한다.
◆ 날 씨 2013.3.13. (수) ◆ 시 간 오후 2시 ◆ 장 소 얌샘 본사 ◆ 문의 1544-3378

1:1 개인별, 수준별 원석지도
Eager Learner를 찾습니다
NAVER

STARCRAFT II
HEART OF THE SWARM™
스타크래프트® II - 군단의 심장
THE RUSH BEGINS
2013.03.12
WWW.STARCRAFT2.COM
BLIZZARD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 주요 내용·절차 Q&A

'토털서비스' 가장 쉽고 빨라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를 이번 주 안에 해야 한다. 보수 총액 신고는 2012년도 월별 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2013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인별 월평균 보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사업장에서 보수 총액 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2년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산정한 결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2013년도 보험료로 충당한다. 반대로 납부한 보험료가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따라서 신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채동호기자

보험가입 전 사업장 15일까지 신고 의무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위탁처리 가능

-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건설업·벌목업은 다음달 1일까지 별도로 보험료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15일까지 보수 총액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한다. 보험 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사업의 폐지·종료 등)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보수 총액 신고는 많은 양의 근로자 고용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장치(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서면 신고나 전자기록장치를 이용한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 보수 총액 신고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된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현황, 연도 중 퇴사자, 일용근로자 등에 따라 보수 총액 신고서 작성 기준이 달라지므로 안내문 등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중 신고 누락된 근로자가 있거나 근로자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별도로 고용(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후 보수 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 보수 총액 신고 결과 변동은?

보수 총액 신고에 의한 정산 결과(부과·반환·충당)는 4월 보험료에 일괄 반영된다. 다만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4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4월과 5월 보험료에 분할 고지(2분의 1)된다.

- 보수 총액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하면 사업장 고용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활용하면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 처리를 할 수 있다. 문의 1588-0075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3월 15일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마감일입니다
1588-0075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total.kcomwel.or.kr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근로자복지 서비스 기관"
15

중산층 지출 62% 오직 내 아가 위해

만 0~5세 영유아 양육에 월 평균 118만원 들어

만 0~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서울 중산층 가정은 월평균 가계 지출의 60% 이상을 자녀 1인에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시내 0~5세 아이를 둔 중산층 450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 물가 현황과 지수화 방안'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첫째 아이 기준 가계 지출은 월평균 118만522원에 달했다.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 207만600원의 61.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자녀 1인당 연간 1416만6260원이 들어갔다. 이들은 조부모 등 혈연에게 자녀를 맡겨도 한 달에 45만원가량을 썼다.

상품 지출은 월 93만3709원(73.7%)이었으며 서비스 지출은 28만4160원(26.1%)이었다. 자녀 성장에 따라 상품지출 비중이 줄고 보육·교육 서비스 지출은 늘었다.

상품 품목별로는 돌잔치나 성장 관련 앨범 제작에 평균 89만2994원을 들여 가장 많이 지출했다. 뒤이어 침대(51만6993원), 영유아 전용 공기청정기(50만4444원), 유모차(43만5121원), 아기 전용 세탁기(37만2444원), 카시트(35만6519원), 전용 가습기(30만2037원), 영유아 교재(26만1087원)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중에서는 보육도우미(45만원), 조부모 등 혈연 보육료(43만7273원), 돌·백일 비용(42만6188원), 유치원(순수교육비)(35만8545원), 외국어학원(26만9167원), 산후조리원(20만9091원), 어린이집 순이용료(15만6347원), 영유아 적금 및 펀드 불입(14만7171원) 등에 지출이 컸다. /채동호기자 cleven@metroseoul.co.kr

왕인 박사 부부 '일본 갑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2013 영암 왕인문화축제를 알리기 위해 백제시대 학자인 왕인 박사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포구로 향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간기능 개선 임상연구 피험자 모집

본 임상시험은 간기능 손상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1. 임상시험 책임자: 김경하(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2. 참여대상
만 2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의 남·녀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 이내에 있는 사람
3. 제외대상
알코올 사용 유발 장애, 심장질환, 중추 신경 장애 등으로 술을 쓸 약을 치료·재활치료 중인 사람
간암, 간경변증, 간암을 앓고 있는 사람
연구 시작 4주 이내에 간 관련 약물을 복용한 사람
4. 참여기간: 약 13주 (총 4회 방문예정)
5. 참여 시 혜택
본 연구에 참여 시 전문 의료진을 통해 진료 및 검사의 기회가 주어지며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제품에 대한 정보
식품원료로 사용 중인 식물에서 추출하여 간기능 개선에 효과가 예상되어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 중입니다.
7. 문의전화: 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02) 2277-3935

택시요금 바가지 차단 외국어 안내책자 배포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연한 택시요금 바가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택시 이용 안내서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10일 영어와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로 제작된 '서울에서 택시 바르게 이용하기' 안내서를 30만 부 제작, 11일부터 공항·숙박시설 등에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4개의 택시 종류와 요금, 공항에서 택시 이용하는 법, 불편사항 신고방법 등의 정보가 그림과 함께 담겼다.

안내서는 목적지까지의 적정 요금과 예상 거리·시간 등과 함께 기본요금, 거리·심야·시외할증 등 요금체계도 안내한다.

안내서는 비지트 서울(www.visitseoul.net)에 e-북 형태로도 게공될 방침이다. /채동호기자

구정소식

용산구, 주민갈등 해소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서울 용산구가 올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상담실'이 주목받고 있다.

10일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해 전문 상담 기능이 없어 갈등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에 나서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청 청사 내 상담실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5시 주택관리사 1명, 회계·인사 1명, 커뮤니티플래너 1명이 상주하며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입주민 간의 갈등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문의 2199-7352

서초여행 외국어 책자 인기

서초구가 도로명 주소를 바탕으로 최근 발간한 '코스로 떠나는 서초여행' 외국어 관광 안내 책자가 인기다.

영어·중국어·일본어 3개 국어로 제작된 관광 안내 책자는 가로 18㎝, 세로 25㎝ 크기에 30면으로 구성돼 있다. 서초구 내 명소 및 숙박·쇼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테마지도 형식으로 제작해 6개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기존 지번을 이용한 관광 안내 책자는 많았지만 도로명 주소를 활용한 테마지도형 안내 책자는 서초구가 최초로 발행했다. 특히 양재천 와인거리·쇼핑 코스, 강남역 즐기기, 서래마을·몽마르뜨공원, 한강공원 등 명소를 코스별로 소개해 외국인들에게 유용하다.

올레마켓 최신무료게임!

다운만 받아도 봄맞이 경품이 펑펑

전자책도 헌책방 생기나

아마존 이어 애플도 중고거래 추진… 현실화 땐 출판업계 치명타

앞으로는 다 읽어서 쓸모없어진 전자책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아마존과 애플이 관련 특허를 내놓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점차 사라져가는 헌책방이 전자책을 다루는 형태로 부활할 조짐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가격이 싸고 갖고 다니기 쉬워 각광받아왔지만 '재활용' 방법이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한번 구매한 전자책은 DRM(디지털저작권관리) 방식으로 보안이 걸린 데다 사용자가 임의로 기기에서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런 불편함은 전자책의 발달에도 종이책이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됐다.

하지만 아마존은 지난 1월 말 전자책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디지털 기반 제품을 서로 교환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특허권을 따냈다.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낮은 가격에 중고 전자책을 보급하고 아마존은 이 시장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애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에 전자책 등 디지털 기반 제품 전용 시장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애플이 구상하는 시장은 소비자들이 전자책, 음원, 영화 등을 내려받거나 복제하지 않고 파일 형태로 매매하는 방식이다. 한 제품에 대해 한 사람이 꼭 한 번의 복사 권한을 갖는다는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미 사용한 전자책 등의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뉴욕타임스는 "아마존과 애플의 시도가 출판 미디어업계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며 "헌책이 아주 싼값에 팔리듯이 전자책 중고시장이 활성화하면 작가들은 작품들이 또다시 헐값에 매매되는 수모를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희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미니스커트 입고 자전거 타면 안 되나요?" 9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짧은 치마에 헬멧을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열린 이번 시위는 치마에 힐을 신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여성들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마련됐다. /AP 연합뉴스

5일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서 소방관들이 굴뚝을 설치하고 있다. /AP 뉴시스

흰 연기냐, 검은 연기냐

새 교황 뽑는 콘클라베 내일 시작… 늦어도 주말 결정

12일(현지시간) 시작되는 콘클라베(교황 선출 회의)를 앞두고 바티칸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9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바티칸 교황청은 콘클라베를 차질 없이 치르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 점검하면서 보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

교황청은 콘클라베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시스티나 성당 내부에 무선 장비 사용을 막는 전파차단기도 설치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추기경들이 교황 선출을 논의하기 위해 앉을 좌석과 탁자는 시스티나 성당 내 미켈란젤로의 프레스코(회반죽 벽화) 천장화 아래 마련됐다. 이날 BBC의 카메라에는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서 소방관들이 굴뚝을 설치하는 모습이 잡혔다.

추기경들이 첫 투표를 마치면 사람들은 굴뚝에 피어오르는 연기 색깔에 따라 교황 선출 여부를 알 수 있다. 115명의 추기경단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지지하는 후보가 나와 새 교황이 탄생하면 굴뚝에는 흰 연기가, 그렇지 않으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때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추기경단은 13일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의 투표를 다시 진행한다. 교황청은 각각 이날 정오와 오후 6시에 연기를 피워올려 교황 선출 여부를 외부에 알린다.

콘클라베가 지난 100년 동안 5일 이상 지속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차기 교황은 이번 주말쯤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선미기자 [illegible]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초대형 꽃다발 퇴짜맞은 이유는

견공의 시각으로 영화 만든다면

제 2형 당뇨병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주 1회 혈당강하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의 제 2형 당뇨병 환자
- 약을 복용하지 않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한가지의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최소 3개월 이상 복용하였지만 적절한 혈당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

2. 참여기간
-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에 적합할 경우 약 34주간 총 9회의 방문과 1회의 전화상담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면 26주 동안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제공되며, 정기적인 검진과 임상시험과 관련된 각종 혈액검사, 뇨검사, 심전도 검사 및 소정의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및 근무시간
평일 9시~6시
☎ 010-5159-4210
010-2941-4210

2년 지났지만… 日 '반원전' 대규모 시위

10일 도쿄 시위에서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머리 위로 '원전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2년을 맞아 일본 전역에서 원전 반대 시위가 열렸다.

9일 도쿄 신주쿠의 메이지공원에서는 '사요나라(잘 가라) 원전 1000만 서명운동' 주최로 약 1만5000명(주최 측 발표)이 모인 가운데 원전 반대 시위가 진행됐다.

원전 반대 운동은 지난해 여름 이후 기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최근 아베 신조 내각이 이전 민주당 정권 수립한 단계적 원전 폐기안을 전면 수정키로 하면서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주최 측 대변인의 일원인 노벨문학상(1994년)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원전 반대 운동이 퇴색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 반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교토의 마루야마공원에서도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바이바이 원자력 발전 3·9 교토' 대회가 열렸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주축이 된 시위대는 시내를 행진하며 정부에 원전 재가동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가가와현 다카마쓰시에서도 300여 명의 시민이 현지 원전을 운영하는 시코쿠 전력 앞까지 약 1.7km 행진했다.

/조선미기자

할리우드 스타 애슐리 주드 내년말 상원의원 출마 확실

할리우드 여배우 애슐리 주드(44·사진)가 내년 말 상원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고 허핑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드의 측근에 따르면 그는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공화당 거물 정치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맞붙을 계획이다.

이미 주드는 민주당의 기부자들과 접촉하는 등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조선미기자

KB 국민은행 뮤지컬 스타 오디션

MUSICAL STAR AUDITION

예선

- 2013년 3월 11일(월) ~ 26일(화) 오후 5시까지
- 참가 대상: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개인/그룹 (※ 기성 프로무대 활동자 및 전년도 수상자 제외)
- 응모 방법: 5분 이내의 본인영상(노래+안무)을 유튜브에 업로드 후 페이스북 내 KB국민은행 "나도 뮤지컬 스타다!" 시즌2 담벼락에 유튜브 URL 및 신청사항 게시
- 응모 내용: 발표된 뮤지컬 노래 중 1곡 (안무 추가 가능) / 장르구분 없음
- 본선 합격자 발표: 2013년 3월 29일(금) 예정 (KB국민은행 "나도 뮤지컬 스타다!" 시즌2 페이스북 & 개별연락)

본선

- 일시/장소: 2013년 4월 11일(목) 오후 7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 출 연 진: 서영주 / 김영주 / 김소현 (예정)
- 심사위원: 프로듀서 설도윤 / 배우 박상원 / 배우 최정원 (예정)

응모 후 kbmusicalstar@seolcompany.com으로 응모자 페이스북 아이디, 성명, 연락처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_KB국민은행 "나도 뮤지컬 스타다!" 시즌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Bmusicalstar

KB국민은행

KOSPI

3/4	3/5	3/6	3/7	3/8
2003.15	2018.41	2029.74	2004.40	2006.01 (+1.61)

KOSDAQ

3/4	3/5	3/6	3/7	3/8
537.38	543.90	544.38	541.30	543.10 (+1.80)

Nikkei (일본) 12283.62 (+315.54)
Hang Seng (홍콩) 23091.95 (+320.51)
Shanghai (중국) 2318.61(-5.68)
Dow Jones (미국) 14397.07 (+67.58)

EXCHANGE RATE

통화	환율
달러	1090.00
엔(100)	1143.64
유로	1426.59
위안	175.38

코리안 "굿바이, 코리아"

코스피 횡보에 국내 투자자 해외증시 거래 112%↑

국내 증시가 주춤하자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국내 투자자가 거래한 해외 주식은 7억1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8% 급증했다.

결제원 관계자는 "국내 증시 상황이 안 좋자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는 올해 종가 기준 2031.10으로 첫 거래를 마감하고서 8일(2006.10)까지 1.24%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9.35% 올랐다. 지수는 8일(현지시간)까지 거래일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주택 경기 회복과 고용 증가로 인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탔다.

연초 이후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18%, 홍콩 항셍지수는 1.52% 올랐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흡수하며 닛케이 평균주가가 18.17% 급등했다.

◆해외투자시 환율·과세 주의해야

결제원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전망된 데다 원화 강세와 북핵 위험 같은 악재까지 겹쳤다"면서 "최근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좋고 투자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아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증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투자 앱 '증권레이더' 2주년기념 무료정보

맞춤형 시황과 빠른 종목 분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권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증권레이더'가 서비스 2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20여 만명이 내려받은 증권레이더는 증권사 출신의 투자 전문가와 유명 증권방송 진행자 6인이 실시간으로 주식시장 분석을 하고 시황과 테마 추천 및 종목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 '주식잡담'이라는 코너를 통해 투자 의견을 실시간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일부 고급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증권레이더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증권 전문가 그룹을 추가 영입하고 3월 한 달간 전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국명기자

'가속 붙은' 디젤차 인기 수입 중고차 4대 중 1대

수입차 디젤 세단이 가솔린 모델보다 많이 판매되는 현상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재현될 조짐이다.

국내 최대 중고차 기업 SK엔카는 올 1~2월 등록된 수입 중고차 중 디젤차의 비율이 27.1%였다고 최근 밝혔다. 수입차 신차 시장에서는 지난해에 디젤차가 처음으로 가솔린차를 앞질렀다.

2002년 SK엔카에 등록된 수입 중고차의 디젤 비중은 1.26%에 불과했으며 93.74%가 가솔린차였다.

디젤차는 증가세가 가팔라 2002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 9년 만인 2011년에 처음 10%를 돌파했고 1년 만인 지난해에 20%대에 들어섰다.

디젤차는 가솔린차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

같은 양을 기준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가격이 싼 데다 연비도 30~40% 높다. 여기에 그간 단점으로 꼽혔던 소음과 승차감이 점차 개선돼 인기를 끄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훈기자 zen@

휘발유값 공포의 2000원 임박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휘발유의 판매 가격이 1978원으로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주유소 전국 기준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5.5원 오른 ℓ당 1953.1원을 기록했다. /뉴시스

'옥에 티' 없앤 재형저축 나온다

최저금리 보장·만기까지 고정금리형 출시될듯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상품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재형저축의 금리 책정 방식을 다변화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금융권과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최저금리보장형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지나 변동금리로 전환돼도 최저 보장 금리 밑으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상품이다. 이는 은행들이 고금리를 내세워 고객을 끌어들였다가 변동금리로 전환하면서 금리를 확 낮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최고 연 4.6%의 금리를 3년간 유지하고 4년째부터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혼합형' 상품을 판매 중이다.

완전고정금리형은 만기 때까지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주는 방식이다. 재형저축은 7~10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는데 이 기간 내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품은 은행이나 소비자 모두에게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섣불리 7년간 금리를 고정하거나 최저금리를 보장하긴 힘들다"며 "완전고정금리상품을 만들면 금리가 3.2~3.3%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1만원짜리 계좌가 속출하는 등 은행권의 재형저축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

가처분소득 57만원 원리금은 145만원

저소득 자영업자 43만 가구는 소득보다 대출금이 많아 부채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10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모두 42만8000가구였다. 이들의 월 가처분소득은 평균 57만7000원으로 소득의 3배가량 되는 매달 원리금 145만1000원을 갚기에 역부족이었다.

연간 단위로 보면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692만6000원이지만 금융대출 잔액은 1억6934만원으로 24배에 달한다.

이 위원은 "저소득층은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면서 "소비 위축이 회복 속에서 자생적 회복 노력과 더불어 새 정부가 채무 감면 대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등 소득 증가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삼성전자, 난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초등자녀로 확대

삼성전자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거듭난다.

삼성전자는 11일부터 '난임 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자녀 갖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임직원이 난임(불임) 시술을 위해 최장 1년까지 쉴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삼성의 여성 임직원은 전체 임직원 9만여 명 가운데 30% 수준이다. 삼성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여직원 비중이 높은 공주 사업장에도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동 본사를 비롯한 전국 8개 사업장에 모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된다. /장용호기자

The Power to Surprise

2013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서울
코엑스(COEX) C홀
2013. 3. 14(목)~15(금) 10:00~17:0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전시장
2013. 3. 21(목) 10:00~17:00

대구
엑스코(EXCO) 3홀
2013. 3. 28(목)~29(금) 10:00~17:00

행사구성 채용상담관, 자기소개서 이미지메이킹컨설팅, 지문인적성검사, 캐리커처, 희망명함만들기, 이력서 사진촬영, 경품추첨 등

- 주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참여 현대·기아자동차 전 부품 협력사 및 정비 협력사
- 후원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
- 운영사무국 취업포털 커리어 (T 02-2006-9539)
- http://hkpartner.career.co.kr

분양단신

부영, 동해 해안 임대아파트

국내 최대 민간건설 기업인 (주)부영주택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떠오르는 강원도 동해시 동해 해안지구에 부영 공공임대아파트 사랑으로 484세대를 공급 한다.

동해해안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는 지하 1~2층 지상 8~13층 9개 동에 전용면적 73㎡ 332세대, 84㎡ 152세대의 총 484세대로 구성됐었다. 6월에 입주할 수 있고 청약은 14~15일까지 1~3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문의 033)532-5980~1

용인 초당역 미봉스타오피스텔

주식회사 미봉이앤씨가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 초당역 앞에 위치한 미봉스타오피스텔을 선착순 분양한다.

미봉스타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9층으로 계약금은 10%이며 분양가의 50%까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2014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전용면적 22.27㎡, 공용면적 30.08㎡로 분양면적은 52.35㎡다. 문의 031)286-4242

e편한세상 어양 6.4 : 1 경쟁률

삼호가 전라북도 익산시에 분양한 'e편한세상 어양'이 84㎡ A타입에서 6.43대 1의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평형 당해 지역 1순위로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익산 신도심 최고의 입지에 e-몰과 단지 1층 전체를 필로티로 설계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을 도입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e편한세상 어양은 13일 당첨자 발표, 18~20일 계약을 진행된다. 문의 063)836-1135

손 댈 필요없는 '터치리스 폰' 기대

14일 공개 삼성 갤럭시S4 어떤 첨단 스펙 탑재될까

> 공기·눈빛 움직임에 반응
> 무선 충전·체중체크 기능
> 옥타코어 CPU 장착 전망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4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공개되는 가운데 제품에 대한 각종 소문이 무성하다.

예를의 아이폰 시리즈만큼이나 갤럭시S4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갤럭시는 손을 대지 않고도 제품을 쓸 수 있는 기능이 돋보인다는 예측이다.

10일 삼성전자 소식을 전하는 전문 사이트 샘모바일 등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S4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떠 있기만 해도 스마트폰이 반응하는 '플로팅 터치' 기술을 탑재한다.

이 기술은 소니의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솔라에 적용된 바 있으며, 삼성 역시 S펜을 화면에 닿게 하지 않고도 사진·동영상 등을 미리 볼 수 있도록 갤럭시노트 II에 '에어뷰' 기능을 담아 비슷한 기술을 뽐냈다.

유저의 눈동자로 페이지를 움직일 수 있는 '아이 스크롤', 동영상을 보다가 다른 곳을 주시하면 화면이 대기 상태로 변하는 '아이포즈' 등도 이른바 '터치리스' 테크놀로지의 일환이다.

선이 달린 충전기 없이도 무선으로 배터리를 채울 수 있는 자기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 기능도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 전용 헬스케어 기기를 연결해 체중, 혈당량, 맥박 수 등을 체크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도 담을 것으로 거론된다.

스마트폰의 핵심인 CPU와 디스플레이 사양도 관심거리다.

CPU의 경우 현재 가장 앞선 것이 쿼드코어인 만큼 보다 나은 사양인 옥타코어가 탑재될 공산이 크다. 삼성은 지난 1월 CES2013에서 모바일용 옥타코어칩을 처음 시연한 바 있다.

풀HD를 능가하는 3세대 AMOLED 패널이 새 갤럭시에 장착될 것으로 이야기가 모아진다. 이 외에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2GB RAM(램), 안드로이드 4.2.1 젤리빈 탑재가 유력한 상황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설치한 갤럭시S4 관련 대형 광고판. 광고판에는 '다음 갤럭시를 준비하라(Be Ready 4 the Next GALAXY)'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오는 14일 공개되는 제품이 갤럭시S4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톡톡! 3조원 쪼아먹는 카톡?

美 SA사 '모바일 메신저로 인한 이통사 손해액' 추정

카카오톡 탓에 이통사가 3조원을 날렸다?

카톡, 라인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득세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6년간 30억 달러(약 3조2600억원)가량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카카오톡·라인·아이메시지·위챗 등이 가입자를 끌어모으면서 2012~2017년 이동통신사 수익 가운데 30억 달러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SA 측 예상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중국 텐센트의 위챗이 가입자 3억명을 넘어섰고, 애플의 아이메시지가 2억5000만 명, 라인이 1억 명, 카카오톡이 약 8000만 명 선이다.

이들 브랜드는 문자메시지는 물론이고 사진·동영상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곳간을 축내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카톡이나 라인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70%는 카톡,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주로 사용한다고 밝혔고,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90%까지 올라갔다. 즉 SNS를 이용할 수 없다면 40대 이상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을 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성훈기자

국민연금 사칭 문자 주의

국민연금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10일 "국민연금 콜센터를 사칭하며 '연금보험료가 미납됐으니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라'는 식의 문자메시지가 전국에 돌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소 클릭 시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의뢰하도록 유도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런 문자를 발송한 적이 없으니 발신 번호로 전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양윤희기자 unique@

2개월 완성
방과후지도사 자격증
KRIVET
www.saro.co.kr
인터넷 검색창에 "스스로방과후지도센터"를 치세요
스스로방과후지도센터 SSRO AFTER SCHOOL EDUCATION 02)2264-2000

75세도 무심사 가입되는 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원활한 가입을 위해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한 간편심사상품이다.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대장암·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대장암·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뇌암·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비교적 치료가 쉽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지 않은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과 갑상선암(갑상선암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받은 경우)은 진단 확정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보장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서연기자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080-951-8585

3월의
롯데카드
싱그러운
혜택이
파릇파릇

당신과 카드의 경제 시너지, 롯데카드

_ 롯데카드 만원의 행복
롯데시네마 전점 영화티켓 2장이 만원(~3.28, 일부점 제외)
롯데월드 본인 자유이용권 만원(~4.30)

_ 런치엔 롯데카드 시즌2
매일 12시~2시 점심값 결제 시 최대 200원 롯데포인트 증정
(홈페이지 응모, ~3.31)

_ 오토할부 더큰행복 이벤트
오토할부 1천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12만원 캐시백(~3.31)
신청 1577-2200, 롯데카드 홈페이지

_ 키자니아 20% 현장할인
결제일 기준, 종일권 및 단체고객 제외(~4.30)

_ 현대H몰 5% 청구할인
5만원 이상 결제 시 5% 청구할인(월 최대 20만원, 3.11~14)

_ 옥션 3% 청구할인
결제금액의 3% 청구할인(기간내 3천원 할인, 3.11~13)

LOTTE CARD

순혈주의 깬 토요타 '하이브리드 조직'화

신임 회장에 '프리우스의 父' 라이벌 GM의 마크호건 영입 창사 이래 최대 조직개편 단행

최근 토요타가 창사 이래 가장 큰 조직 개편 단행을 예고했다.

사업 부문을 ▲렉서스 인터내셔널 ▲제1 토요타 ▲제2 토요타 ▲유닛 센터 등 총 4개로 나누고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을 이사회 임원으로 영입한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카 '프리우스'를 개발한 사람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4월 1일 시행되는 토요타의 이번 개편은 '글로벌화'로 요약된다.

4개 사업 부문의 수장인 부문장에 설비에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권을 부여한다. 기존 일본 토요타 헤드쿼터에서 나온 전략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현지 특성에 맞게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토요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협이었던 2010년 대량 리콜 사태는 북미 지역에서 일본 본사의 지시를 기다리다 불거진 참사로 평가된다. 즉 유사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번 개편으로 재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전 GM 부회장인 마크 호건을 이사회 멤버로 앉힌 것도 깜짝 뉴스다. 순혈주의를 이어온 토요타는 이사회는 물론이고 어지간한 곳의 지사장도 가급적 일본인을 고집했다. 한국인 수입차 브랜드 지사장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토요타는 일본인(나카바야시 히사오)을 내세운 상황이다.

GM은 토요타의 최대 라이벌이다. 판매·생산 대수에서 1위를 놓고 경쟁하는 브랜드다. 적의 최고 레벨 장군을 빼왔다는 것은 적을 넘어서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GM의 글로벌 경영과 마케팅을 적극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프리우스의 아버지' 우치야마다 다케시를 신임 회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토요타의 향후 행보를 짐작하게 한다.

하이브리드카를 전 세계에서 밀고 있는 토요타가 이러한 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을 당당하게 밝힌 셈이다.

이미 한국토요타는 이러한 행보를 시작했다. TPMS(타이어공기압장치)를 기본 장착한 2013년형 뉴 캠리 하이브리드에 현금 구매시 100만원의 주유권 지원 및 36개월 5.95%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토요타 파이낸셜 서비스 이용시), '프리우스'의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3월 '프리우스' 구매시 24개월 무이자 할부(토요타 파이낸셜 서비스 이용시) 또는 현금 구매 시 200만원의 주유권을 지원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연비 정말 착한 '프렌치 귀요미'

드림카 열전 | 푸조 208

'208'의 미션은 '폭스바겐의 골프', 'BMW 미니'를 쫓는 것 아니 근소하게 따라잡는 것이다.

성능은 경쟁 모델과 비슷하다. 시승 모델인 1.6 e-HDi 알뤼르(3도어)는 92마력의 출력, 23.5kg·m의 토크를 기록한다. 엔진 크기의 제약으로 이 정도 힘을 내뿜는 것도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이다.

약점은 연비다. 복합 기준 18.8km/ℓ 인데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면 서울~부산을 왕복하고도 대전까지 더 갈 수 있다. 골프나 미니보다 앞서는 수치다.

승차감, 인테리어 수준에서 보면 사실 이 체급의 자동차에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따지면 를 민망하다. 이 차를 만든 목적, 이 차를 사는 사람의 목적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자인은 워낙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뛰어나다. 보는 사람들마다 "예쁘다" "깜찍하다" 하고 탄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프렌치 스타일이라는 것이 거품은 아닌 듯하다.

다만 이 차의 '만화 같은' 연비의 주인공인 MCP 미션은 계륵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MCP는 수동변속기를 자동변속기 처럼 쓰지만 수동변속기의 장단점을 고스란히 가져온 것이다. 즉 경제성과 함께 변속 시 덜컥거리는 단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 가격은 2590만~2890만원. /박성훈기자 zen@

metro opinion

해외인재 푸대접하는 대한민국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계기로 빚어진 여야 간 정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겼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대정된 김종훈 전 벨연구소 사장이 돌연 사퇴하며 가진 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면담조차 거부하는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성급한 처신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지만 본인과 가족의 잠 못 이루는 번민의 결과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주요 국들은 인재 확보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1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후진타오 정권 내내 해외 인재 영입에 몰두했다. 약 2000명에 달하는 해외 인재 유치 목표를 세워 1500명 정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오늘날 놀라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가 뒷받침 됐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를 테면 실리콘밸리와 연결돼 있는 스탠퍼드대학 졸업생 가운데 박사학위 중국인에 대해서는 귀국 후 요직 안배는 물론 창업을 원할 경우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야말로 '인재 제일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차기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으로 이중국적자이며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스탠리 피셔가 유력시되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살아생전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외국인이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조건 없이 미국의 영주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날 1970년대에 경제개발 과정에서 해외 인재 영입에 몰두한 바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KDI(한국개발원)를 설립(1971. 3. 11)할 때 300여 명의 재외 경제전문가를 유치했다. KAIST(한국기술원)를 세울 때(1971년 2월 16일)는 당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보다 더 많은 대우를 해주더라도 해외 박사를 데려오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재 중시 전략'이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쟁은 해외 인재를, 그것도 글로벌 인재를 헌신짝처럼 대하는 [illegible] 다름없다. 이번 장관 대정자 중도사퇴는 김종훈 전 벨연구소 시장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김종훈 장관 대정자에 대한 정치권의 자세는 해외 인재, 나아가 800만 재외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재외 국민에 참정권이 부여돼 조국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 판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야당 일각에서는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정치 풍토에서 우리가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 빛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포토프리즘 — 명동 빙거리 축제

5일 밤 서울 중구 관광특구협의회가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새봄을 맞아 개최한 '블루 나이트 페스티벌'에서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이 장시간 DJ가 선사하는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대 오른 안철수 새정치

오늘의 시선
천 이 윤
<칼럼니스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1일 귀국한다.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당일 개표 결과도 지켜보지 않은 채 미국으로 떠난 지 83일 만이다. 안 전 교수는 귀국 후 '4.24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병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함께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 정치 개혁 구상 등 자신이 지향하는 새정치 비전도 소상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대선이 끝난 지 채 3개월도 안 돼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셈이다.

안 전 교수의 이른 복귀는 다소 예상 밖이다. 당초 10월 재보선에 출마할 것으로 내다봤던 데 비하면 발 빠른 행보다. 현 정치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장관 임명도 늦어졌다. 여야 간 청와대와 야당 간 극한 대치만 있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졌다. 지금이 바로 새정치를 표방하는 자신이 나설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시각은 좀 복잡하다. 안 전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야권 후보 단일화의 한 축으로서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권은 그렇다 치도 야권에는 그의 조기 복귀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하는 비판 기류가 없지 않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껄끄러운 분위기다. 대선 패배 후 아직 당 지도부도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철수 바람'이 불면 당의 존재감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하필 출마 지역이 노원병이냐는 점도 논란거리다. 노원병은 '삼성 X파일' 공개로 '억울하게' 의원직을 잃었다는 얘길 듣고 있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다. 야권에는 노 전 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런 마당에 안 전 교수는 여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신의 출신 지역인 부산 영도가 아닌 야권 강세 지역인 노원병을 택한 건 '쉬운 길로 가려는 낡은 정치 행태'라는 지적이다.

대선 주자답지 못한 행보라는 비판이다. 노 전 의원이 "가난한 집 가장이 밖에 나가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왜 집 안에 있는 식구들 음식을 나눠 먹으려 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그 때문이다. 저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안 전 교수는 뜬구름 잡는 새정치가 아니라 '안철수식 정치'의 실체와 비전, 실천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책무가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역시 '구태 정치인 중 한 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딸 서영이'와 '7번방의 선물'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천호진의 연기는 예전하다. 틀없는 청년이거나 형사반장, 장교였고 1990년대 말 이장호 감독의 영화 '외인구단'에서는 지적이고 차가운 마동탁 역을 맡기도 했던 그는 중년을 넘어선 이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눈빛에는 겉으로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슬픔이 고여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은 시선이 담겨 있다. 최민식이 주연했던 '주먹이 운다'에서 밥집 주방장으로 잠깐 나왔던 그는 '연리지'에서 손 코너라가 순할을 도는 경찰 단역으로 강한 인상을 준 것과 비견될 정도로 기억에 남는다. 그가 짓는 어렴한 미소 때문이었다.

TV 드라마 '내 딸 서영이'에서 초라하고 무능력하지만 자식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아버지로 나온 천호진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고통스러워도 진실한 사랑을 감당하는 부정(父情)의 고뇌가 딸 서영으로 나온 이보영의 속으로 참고 참았던 눈물과 뒤디가 되는 사연을 침착하게 보여준다. 긴 시간의 오해와 삶을 파괴하는 갈등을 넘어서서 인간의 진심이 미흡대 받아들여지는 순간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등장하는 연기자들도 하나같이 발군이었다. 서영을 사랑하는 강우재 역을 맡은 강렬하면서도 정이 깊은 이상윤의 연기와 서영의 쌍둥이 남제 상우로 나오는 박해진의 다정하고 맑은 눈동자도 이 드라마의 격박을 지켜내는 숨결이었다.

억울하게 환의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 바보 용구의 이야기를 그린 '7번방의 선물'은 류승룡의 놀라운 변신을 보여준다. 꼬마 이 나라 딸 예승이로 나오는 갈소원의 연기도 관객들을 열어 나가도록 사로잡는다. 이 영화가 의미가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벽주류 변방 업계'라고 할 김우택의 NEW(Next Entertainment World)'가 배급 독점 구조를 깨면서 영화관에 이 작품을 진출하게 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NEW는 기존의 배급사 누구도 쉽게 선택하지 못했던 정지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를 극장에 유통시킨 회사이기도 하다.

'내 딸 서영이'나 '7번방의 선물' 이나 모두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변에 존재감 없이 밀려난 이들의 아픔과 인간적 진실, 그리고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변방의 존재들이 사실 가장 인간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역설적인 희망이다. 새것은 거기에서 탄생한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제안, 주장(원고지 3~4매 내외) 등을 e-메일(opinion@metro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지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혼란만 안겨주는 입시제도 이젠 그만

이윤지(15 대학생)

입학과 개강의 설렘을 만끽하고 있는 13학번 신입생으로서 우리나라 대입 제도에 남기고픈 말이 있다.

몇 달 전까지 전쟁 같은 입시를 치르면서 우리나라 대입 제도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특히 수시모집은 난수표와 같다. 학생부, 논술, 입학사정관, 적성고사 등 전형이 다양해졌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혼란도 커졌다.

대부분의 수시모집은 학생의 특기 활동과 수상 실적을 반영하는 전형이 많아 학생들은 타의든 자의든 사교육의 문을 두드린다. 정부와 대학 측에서는 '학생 혼자서 학교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선생님과 부모님 모두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대학 입시 관련 잡음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입시 제도를 대폭 손질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툭하면 바뀌는 교육 정책 때문에 수험생은 더욱 우왕좌왕한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교육 정책과 입시 제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운영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보완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앞으로 대학생이 될 14학번, 15학번 후배들은 안정적인 교육 제도 속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당신과 카드의 경제 시너지, 롯데카드

_ 이정 콘서트 단독 할인
콘서트 티켓 50% 할인(~3.22)
롯데카드 10만원이상 이용고객 대상 추첨 후 100명에게 콘서트 티켓 증정
(~3.17 홈페이지 응모 필수)

_ 동화면세점 결제 금액별 사은권 증정
20/40만원 이상 결제 시 동화면세점 1/2만원 사은권 증정
기간 중 1회, 온라인 면세점 제외(~3.31)

_ 쉐보레 서비스센터 이용 시 주유권 증정
5/10/20/30만원 이상 결제 시 GS모바일 주유권 5천원/1만원/2만원/3만원 증정
기간 중 1회, 금액합산 불가, 일부 가맹점 제외(~4.11)

_ 21주년 안심유학 유학네트 통큰 혜택
해외 어학연수 학비 300/500만원 이상 결제 시 3/5만원 청구할인, 학비 10% 할인
해외 유학비 5만원 이상 결제 시 2~4개월 무이자할부

LOTTE CARD

'칼날여왕' 눈뜨면 게이머 심장 뛴다

드디어 내일 출시되는 '스타크 II 군단의 심장'

케리건 직접 육성하고 군단의 진화 흥미진진 RPG식 레벨 도입 눈길

3월의 봄날, 게이머를 흔들어놓을 탄탄한 스토리와 기발한 기능으로 무장한 올해 최고 기대작이 다가온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12일 출시되는 '스타크래프트 II: 군단의 심장'에서 '칼날 여왕' 케리건의 복수와 그녀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 매력적 스토리로 공상 영화와 소설을 능가하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라 케리건은 테란과 프로토스, 저그 세 종족의 엇갈린 운명에 선 인물로 원래는 테란의 유령 요원으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저그 종족의 수호자이자 전 우주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 칼날 여왕이다.

지난 1월 공개 이후 큰 화제를 모았던 군단의 심장 오프닝 시네마틱에서는 테란과 저그의 격렬한 싸움과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한 실험실에서 눈을 뜨는 케리건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펼쳐지는 케리건의 복수 이야기는 군단의 심장 싱글 플레이어 스토리 라인의 주축을 이룬다. 플레이어는 케리건과 함께하는 복수의 여정 속에서 군단을 진화시키는 것은 물론 케리건을 직접 육성할 수 있다.

케리건은 임무를 해결해나갈수록 성장하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공격적인 성향이 될 수도, 방어적인 성향의 기술을 보유할 수도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군단의 지휘자가 된다.

케리건 육성 외에 또 다른 재미는 저그 군단의 진화다.

예를 들어 저그의 대표 지상 유닛인 저글링은 임무 진행 중에 두 갈래의 변식 중 하나로 변이가 가능하다. 저글링 생성 시 한 마리의 애벌레당 두 마리가 아닌 세 마리를 생성시켜 군단의 증식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마치 테란의 사신처럼 언덕을 뛰어넘는 날개 달린 저글링으로 진화시켜 기동력을 높여줄 수 있다.

군단의 심장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은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 스타크래프트 II: 자유의 날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RPG식 레벨 시스템의 도입이다.

싱글 플레이어 속 케리건은 임무를 진행해나갈수록 점차 높은 레벨로 성장한다. 멀티플레이어에서도 종족별로 최고 30레벨까지의 레벨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에 대해 군단의 심장 게임 디렉터인 더스틴 브라우더는 "게임 내 영상의 비중이 높아지거나 케리건이 성장하는 등 RPG 장르와 유사한 요소를 강화한 이유는 싱글 플레이어에서 이야기 전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며 "멀티 플레이어의 경우 레벨 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종족의 숙련도를 올리기 원하는 유저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운 목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싱글 플레이어 속 케리건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더라도 최고 레벨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멀티플레이어에서 레벨이 높은 유저가 꼭 실력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척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RPG 시스템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12일 군단의 심장 출시와 함께 테란의 영웅 짐 레이너와 옛 칼날 여왕 케리건의 사랑과 복수를 담은 이야기가 공개된다.

◆ 광나루역 인근 유니클로 악스코리

군단의 심장은 11일 오후 7시부터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인근에 위치한 유니클로 악스에서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릴레이 중계되는 글로벌 출시 행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소장판과 일반판을 가장 빨리 구매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여친 즐겁게 해줄 '수다떠는 인형'

화이트데이 맞춰 14~17일 감성인형 '퍼비' 론칭쇼

화이트데이 프러포즈의 성공 여부는 센스에 달렸다.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이라지만 정작 많은 여성들이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로 꼽는 게 바로 사탕이다. 봄을 맞는 여심을 설레게 할 특급 선물이 필요한 때다.

트렌디하면서도 남들과 다른 스타일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라면 감성인형 '퍼비'가 제격이다.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귀여운 외계인 캐릭터 인형으로 성격이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능까지 갖췄다. 말을 걸면 대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한다. 주인과 대화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는 모습은 기특하기만 하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공주님, 개구쟁이, 시고몽치, 수다쟁이 등 예측 불가능한 성격으로 진화하는 것도 '퍼비'의 매력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 주기, 퍼비쉬(퍼비 언어) 통역, 뿅뿅뮝뮝 영상 SNS 업로드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해즈브로코리아는 퍼비 출시를 기념해 화이트데이인 14일부터 17일까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대규모 '퍼비 론칭쇼'를 개최한다.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5시부터는 퍼비 홍보대사인 개그맨 노홍철의 팬사인회가 예정돼 있다. /전효순기자

경품은 '퍼비'를 타고

◆댓글 달면 '판도라박스'

해즈브로코리아가 독특한 사랑 고백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퍼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furbykorea)에서 11~12일 댓글을 달면 30명을 선정, 퍼비는 물론 각종 액세서리가 담긴 '판도라 박스'를 드려요!

◆퍼비 기사 챙겨오면 '케이크'

14일 오후 7시 퍼비 론칭쇼 현장인 영등포 타임스퀘어 1층 아트리움A로 메트로신문에 게재된 퍼비 기사(11일자)를 챙겨오세요. 선착순 50명에게 퍼비 스페셜 캐릭터 케이크(사진)를 선물합니다.

눈길 잡는 발길

연제 워킹화~B1A4 스니커즈 브랜드마다 화사한 신제품들

봄은 '발끝'에서 시작된다. 따뜻한 봄날에 어울리는 화사한 새 신발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흰색을 사용한 크록스의 '캐치 라인 보트 슈즈'는 신발 상단과 이웃솔의 두툰 컬러 배치가 돋보인다. 크록스만의 특허 소재 크로슬라이트를 사용해 가볍다. 성인용 7만9900원, 아동용 5만9900원.

휠라는 손연재 워킹화 '에스 웨이브'(9만9000원)를 선보였다. 무봉제 공법을 적용해 불필요한 무게를 줄이고, 이중 쿠션을 적용해 착화감이 뛰어나다.

푸마는 1960년대 스웨이드를 재해석한 '2013년 스웨이드 패밀리'를 출시했다.

빈티지함이 살아있는 '클래식 스웨이드', 경쾌한 콘셉트의 '스웨이드 아카이브 라이트', 포인트 컬러가 돋보이는 '휴처 스웨이드' 세 가지로, 아이돌 그룹 B1A4를 아이콘으로 내세워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박지원기자 pjw@

화이트데이 달콤한 선택

메트로시티, 쿠킹세트 경품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메트로시티가 '해피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14일까지 3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초콜릿 쿠키를 만들 수 있는 쿠킹 세트를 증정한다. 초콜릿 쿠킹 세트는 올 봄·여름 시즌 신제품인 '밀라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한정 수량으로 제작됐다.

웨스틴조선 '김태우 콘서트'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14~15일 오후 8시 로비층 그랜드볼룸에서 가수 김태우의 '화이트 로맨스 위드 김태우' 콘서트를 진행한다. 식사를 포함한 VIP석은 19만8000원, R석은 11만원. 문의 02)317-0014

'멈 로제' 사면 마카롱 증정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샴페인 브랜드 멈(G.H.MUMM)이 화이트데이를 맞아 멈 로제 구매 고객 선착순 300명에게 '화이트데이 마카롱 세트'를 증정한다. 마카롱세트는 정홍연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문의 02)3466-5700

노스케이프 고객되면 산행보험 무료로 가입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케이프가 이달 말까지 '안전 산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등산객이 많아지는 봄 시즌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구매 금액에 따라 산행보험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전국 노스케이프 매장에서 15만원, 25만원 이상 제품 구매 시 각각 쿠폰 5장, 10장이 지급되며 할로홍 홈페이지에 쿠폰 번호를 등록하면 산행보험에 가입된다.

쿠폰 1장당 하루의 보험이 적용되며 상해후유장애 및 골절 진단비, 상해 입원일당, 휴대폰 손해 등을 보장한다. 문의 www.northcapekorea.com /김보람기자

첫 출산후 여성의 발 길고 넓어져 '평발'화

출산 후 여성들이 평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아이오와 의과대학 임상 퇴행성 관절염 연구 프로그램 실장 닐 시걸 박사는 여성은 임신 중 발이 길어지고, 아치의 높이가 낮아져 출산 후에는 평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시걸 박사는 "임신으로 인한 체중 증가로 발이 눌리고 관절이 느슨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임신 여성 49명을 대상으로 임신 첫 3개월 사이와 출산 5개월 후에 각각 발의 아치를 측정, 비교했다. 그 결과 이들 중 60~70%의 발 사이즈가 길어지고, 2~10mm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 이러한 변화는 첫 임신 출산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이후 임신 때는 발의 구조에 더 이상의 변화가 없었다.

시걸 박사는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발, 무릎, 고관절, 척추에 통증이나 관절염이 잘 나타나는 이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위장 굳게 하는 '담'독소 없애야!

역류성 식도염-위담한방병원에 물어보세요

직장인 이모(38)씨는 12년간 명치 끝 통증과 역류성 식도염을 앓았다. 일반 양약과 제산제로는 나아지질 않자 고민 끝에 한방병원에서 위장의 담 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가슴 통증과 역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역류성 식도염이 완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해질 때마다 위산 분비 조절제를 먹으며 지내는 환자가 많다. 약을 복용하는 것으론 근본 치료가 미약하다고 느껴서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가 안 되는 병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도 한방에서 호전될 수 있다.

한방은 식도염 만성 위장병 역시 위장에 누적돼 위와 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담' 독소를 근본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담에 의해 위장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바로 윗부분인 식도 아래 괄약근까지 운동력이 떨어지면서 꽉 조이지 못하고 자주 열리게 돼 위 속의 내용물이 다시 식도로 올라간다.

위담한방병원 최서형 대표원장은 20여 년간 위장을 굳게 하는 담의 독소를 '담본에 발효한약'을 통해 제거하고, 기계치료로 보완해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해왔다. 최 원장은 "역류성 식도염이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식도 하부 괄약근이 느슨해져서 발생하기도 한다"면서도 "담에 의해 위장이 굳어감에 따라 발생하면 잘 낫지도 않고 역류성 식도염 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뒷목 통증, 관절통 혹은 피부병, 안구통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야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담(痰)이란 잘 흡수되지 못한 음식 노폐물과 체액이 불완전하게 변형된 형태다. 위장에 누적되면 중증 위장병뿐만 아니라 림프절이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 각종 질환을 일으켜 노화와 비만, 각종 난치성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위와 장에 열감을 일으키는 약재 성분과 시호나 산성다당체 등을 농축한 약재를 투입하면 위와 장 부위에 직접 스며들어 담 독소가 녹는 데 도움을 준다. 굳었던 위장과 식도 괄약근이 풀려 정상으로 돌아오기 쉬워진다.

역류성 식도염과 몇 가지 전신 질환에 이미 시달려왔던 중증 환자는 각 부위 질환도 해결하기 위해 고주파 열치료, 초음파 등의 기계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김민지기자

'콩팥대사' 이수근 이대병원 온다

14일 '세계 콩팥의 날' 행사 건강강좌·홍보대사 위촉식

대한신장학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이대목동병원 강의실에서 '세계 콩팥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콩팥 질환에 대한 전문의 건강 강좌에 이어 개그맨 이수근씨를 대한신장학회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건강 강좌에서는 ▲'콩팥병이란?'(강덕희 이화의대 신장내과 교수) ▲당뇨병 및 고혈압과 만성 콩팥병(유동열 이화의대 신장내과 교수) ▲만성 콩팥병의 예방 및 관리(정경환 경희의대 신장내과 교수) ▲급성 콩팥병의 예방 및 관리(이창화 한양의대 신장내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강덕희 이화의대 신장내과 교수는 "대한신장학회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콩팥병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대목동병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개 강좌는 일반 국민들에게 콩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모두에게는 타월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혈압측정기, 구급함 세트, 민보케어링 6종 세트 등의 경품도 나눠준다.

/김민지기자

아기 배 속 가스 빵빵? 에어밸브 젖병 사용을

환절기 면역력 약한 영유아 질환 예방요령

요즘처럼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바이러스성 장염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때문에 면역력에 약한 아이들은 환절기에 좀 더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아기가 자주 배앓이를 하고 배탈이 난다면 1차적으로 수유 시 사용하는 젖병이나 젖꼭지를 점검해봐야 한다. 수유 시 젖병 속에 있던 공기가 유입될 경우 아기의 배 속에 가스를 차게 한다. 이로 인해 아기들은 배앓이를 하게 되므로 공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유 전문 브랜드 '유피스'는 배앓이를 예방하기 위해 젖꼭지를 뺄 때 불필요한 공기 유입을 방지하는

'에어 밸브 시스템'을 모든 젖병과 젖꼭지 제품에 도입했다. 특히 유피스의 'PPSU젖병'은 지난해 K컨슈머리포트 '매우 우수' 추천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환절기에는 아기 피부에 아토피 등 트러블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럴 땐 보습 효과가 뛰어난 아기 전용 스킨케어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령메디앙스 '닥터아토 에센셜 모이춰 로션'은 천연 메디컬 허브의 풍부한 보습력을 그대로 담아 피부를 촉촉하게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준다.

환절기에 아이들은 유난히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린 감기는 잘 낫지 않는다. 이때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해야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일동후디스는 영유아를 위한 초유 함유 제품으로 트루맘뉴클래스 퀸, '하이키드 초유밀플러스'를 비롯해 '초유 넣은 베이비 우유' 등의 다양한 초유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김민지기자 mnj@metroseoul.co.kr

병의원 전용 보습 화장품 '피지오겔 AI 리페어' 출시

글로벌 제약기업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이 병·의원 전용 보습 화장품 '피지오겔 AI 리페어 인텐시브'(5만원)를 선보였다.

피부 각질층과 유사한 보습 기제가 손상된 피부 보호막을 강화해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해준다. 로션처럼 부드럽게 발리면서 크림의 고보습력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무향·무색소·무활성 유화제·무방부제의 저자극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 유·소아를 포함한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80)901-4100

국립오페라단
팔스타프를 둘러싼 명랑한
인들의 귀여운 반격!
작곡가 베르디, 그가 남긴
나의 유쾌한 오페라
G.Verdi
Falstaff 팔스타프
2013. 3. 21(목) ~ 24(일) 평일 7:30pm 토·일 3:00pm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Club BALCONY

star bag

YG패밀리와 기념 콘서트

기수 세븐이 9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군니에 가기 전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며 입대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거미·빅뱅·2NE1 등 YG엔터테인먼트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동료들이 총출동했다. 세븐은 19일 경기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

일본 앨범 출시 미니라이브

여성 싱어송라이터 주니엘이 9일 일본 도쿄의 타워레코드 시부야점에서 첫 일본 앨범 '주니'의 발매를 기념한 미니 라이브 콘서트와 사인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니엘은 '포에버' '트레블' 등을 불렀고, 기타 연주 실력도 뽐냈다. 6일 출시된 현지 앨범 수록곡으로 씨엔블루 정용화와 함께 부른 '바보'는 일본 최대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 레코초쿠의 5일자 K-팝 이사이 일간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댄싱9'서 마네킹 몸매 과시

톱모델 혜박이 8일 방송된 MBC '댄싱 위드 더 스타 3'에서 마네킹 뺨치는 몸매를 과시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의상 치수를 재던 김영희 디자이너에게 "키 178㎝에 33-24-36"이라고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공개했다. 혜박은 우크라이나 10댄스 댄스스포츠 챔피언십 우승에 빛나는 제나와 짝을 이뤄 우승에 도전한다.

장폐색증에도 컴백 강행

2AM 이창민이 마비성 장폐색증에도 컴백 활동을 강행했다.

장폐색증은 장운동이 중단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8일 오전부터 몸이 이상을 느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KBS2 '뮤직뱅크'에서 복귀 무대를 선사했고 9일 오전 한 차례 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MBC '쇼! 음악중심'에도 출연했다.

"멜로 연기 자신감 생겼어요"

화창한 봄날에 만난 박신혜는 막 피어난 꽃처럼 싱그러웠다. 눈빛은 초롱초롱했고 표정과 말투는 발랄하고 꾸밈이 없었다. 데뷔 10년째인 올해 드라마와 영화 해외 활동의 성공으로 어느 때보다 행복한 봄을 맞고 있는 그는 "이제 고작 스물셋 살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드라마·영화 종횡무진

박신혜

소녀에서 어엿한 여인으로

SBS '천국의 계단'에 최지우의 아역으로 나왔을 때가 벌써 10년 전이다. 금세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맑은 눈이 예뻤던 소녀가 드라마 '천국의 나무' '미남이시네요' '넌 내게 반했어'에 이어 지난달 말 화제 속에 종영한 tvN '이웃집 꽃미남'에 출연하며 어엿한 여배우로 성장했다.

"드라마가 잘 끝난 것도 좋지만 제 감정과 눈빛에서 이젠 여자의 느낌이 난다는 평을 받은 게 가장 좋았어요. 이 작품을 계기로 내면도 많이 성숙했고요. 앞으로 로맨틱 코미디뿐 아니라 멜로를 해도 어색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 "
> '이웃집 꽃미남'서 은둔형 외톨이 '여자의 향기 폭폭' 평가 가장 기뻐
> ⋮
> '7번방'으로 1000만 배우 타이틀 데뷔 10년차…이제부터 시작이죠

극중 이웃집 꽃미남을 훔쳐보는 은둔형 외톨이 고독미를 열연했다. 지난 몇 달간 학창 시절의 상처로 세상과 거리를 둔 백여을 표현하기 위해 마음속 깊이 감춰둔 상처를 끄집어내야만 했다.

"실제 성격이 밝은 편이지만 무작정 밝지만은 않아요. 감정 기복도 있고 감성적이고 눈물도 많죠.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들어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당시 갑자기 쏟아진 스포트라이트를 감당하기 힘들었죠. 지금은 웃으면서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정용화는 친구·박희순 선배 짱"

다행히 서랍 속이 많이 촬영장은 늘 즐거웠다. 성격 좋은 꽃미남들만 만났고 매번 호흡이 잘 맞는다는 기분 좋은 칭찬을 들었다. '미남'과 '넌 내게…'로 두 번이나 만난 씨엔블루 정용화와는 열애설에도 휩싸였다.

"제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강한 인상이 아니라 다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용화와는 친한 친구일 뿐인데 이미 두 번이나 함께하니 팬들이 MBC '우리 결혼했어요'를 보는 느낌으로 우릴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윤시윤에 대해서는 "처음엔 연기에 대한 의견이 달라 티격태격했지만 그러면서 나중엔 많이 친해졌다"고 귀띔했다. 이어 "박희순 선배 짱이다. 다음엔 그 선배와 꼭 같이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5월 입대한 유승호와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했다. 얼마 전 소지섭의 미니앨범 뮤직비디오에서 유승호와 키스신을 연기했던 그는 "마냥 어린 동생 같았던 승호와 키스신을 찍으니 죄짓는 기분이었다"고 너스레를 떤 뒤 "입대 하루 전에 승호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있던 걸 뒤늦게 발견해 미안했다. 면회 가겠다"고 말했다.

영화 에피소드와 향후 행보

드라마가 성공한 것 외에도 출연작인 영화 '7번방의 선물'이 12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1000만 배우'에 이름을 올려 더욱 뜻 깊다. 극중 여섯 살 지능을 가진 아버지 용구(류승룡)의 딸 예승(갈소원)이 성인이 된 모습을 연기했다.

"1000만 관객 돌파는 기쁘지만 '1000만 배우'라는 말은 제가 얻기엔 큰 나이들 같아요. 이 작품은 출연만으로도 영광이었죠. 앞으로 제가 이끄는 영화에서 잘 되어야죠. 아직은 힘이 부족해요."

영화 말미에서 용구의 죄를 벗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그는 "같은 소속사에 있는 박세영 언니와 친해서 함께 극장에 '신세계'를 보러 갔다가 우리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사람들이 울면서 나오다가 제 얼굴을 직접 보니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 깔깔대며 에피소드를 전했다.

17일부터는 여배우로는 최초로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나서는 등 해외에서도 승승장구다. "관열이라 부담은 되지만 재밌을 것 같다"면서 "소녀시대 써니의 노래를 리믹스해 선보일 예정이라 지금 열심히 안무 연습 중"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박진아 기자 ssk5427@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 디자인/강성혁

한·일팬 홀린 '아이유의 마법'

주연작 '이순신' 첫방 시청률 22.2% 대박 예고
같은 날 열도선 새 앨범 뮤직비디오 선봬 '눈길'

아이유가 팔색조 같은 매력으로 한국과 일본 팬을 동시에 사로잡았다.

아이유가 처음 주연을 맡은 KBS2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은 9일 첫 방송에서 22.2%(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박' 드라마 탄생을 예고했다. 5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거둔 전작 '내 딸 서영이'의 첫 회 시청률보다 2.9%포인트 높은 수치로, '서영이'에 앞서 방송된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첫 회 시청률(22.3%)과 0.1%포인트 차이다.

아이유는 외모와 능력 모두 보잘것없는 주인공 이순신을 맡아 첫 회부터 비교적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입사 면접에서 이유으로 놀림받고, 호텔 아르바이트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하루 만에 해고된 뒤 길거리 캐스팅 사기를 당하는 등 불행한 일상의 연속을 과장되지 않은 연기력으로 소화해 동정심을 유발했다.

지난주 제작발표회에서 "예쁘지 않아 별다른 분장이 필요 없다. 여느 예쁜 여배우들과 달리 초라하고 예쁘지 않게 나올 수 있어 자신 있다"고 밝힌 것처럼 평범한 외모이지

만 특유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캐릭터에 충분히 녹여냈다.

또 엄마 역의 출생의 비밀이 첫 회부터 공개되는 등 속도감 있는 전개가 캐릭터에 대한 몰입을 도왔다.

한편 20일 일본에서 새 앨범 '잔유 하여 미?'를 발표하는 아이유는 타이틀곡 '뷰티풀 댄서'의 뮤직비디오를 9일 공개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소녀에게 소년이 소리를 만지는 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청순하면서도 여성미가 돋보이는 여주인공을 연기해 눈길을 끌었다. 앨범 발매에 맞춰 27일 일본 도쿄국제포럼에서 첫 팬미팅도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싸이 신곡에 쏠린 세계의 눈

타임·빌보드 집중보도

국제가수 싸이의 다음달 신곡 발표 소식에 해외 유명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다.

싸이가 4월 13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단독 콘서트 '해프닝'에서 신곡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유튜브를 통해 전해진 8일, 미국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타임은 "싸이, '강남스타일'의 후속곡 다음달 발매"란 제목의 온라인 칼럼에서 "이날(4월 13일) 콘서트는 유튜브에서 전 세계로 생중계될 예정"이라며 "신곡 발표 소식에 영어와 중국어, 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자막이 삽입된 걸 보면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지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남스타일'의 '말춤'은 지난해 여름 인터넷에서 센세이셔널한 현상으로 떠올랐다. 뮤직비디오는 10억 뷰를 훌쩍 넘는 기록으로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이 됐다"면서 "백악관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초청받아 공연했다"고 덧붙였다.

대중음악 전문지 빌보드도 신곡 소식과 더불어 "엄마 젠틀 강남스타일'의 리믹스 EP 앨범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조성준기자 when@

술 마시면 옷 벗는 여스타 A

연예가 소곤소곤

▶ 동료들 노출증 걱정하기도

여성 스타 A가 술자리에서의 노출증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친한 지인들이나 업계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A는 '꼭 가려야 할 부위'를 아주 과감히 드러내곤 한다는데요. 이 같은 모습을 목격한 남자 동료들은 처음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만 나중에는 보기가 지겨워져 "그만 좀 벗어라"며 핀잔을 내뱉는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A의 증세를 걱정하면서도, 술자리 분위기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만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 연예인 B는 '무개념 진상'

다양한 재능으로 주목받는 또 다른 여성 스타 B가 방송 업계에서는 '무개념 진상 연예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초청된 B는 피아노 연주를 보여줄 것을 요청받았는데요. 즉석 요구가 아닌 이미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지만, B는 감정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건반을 10개도 치지 않은 채 일침 자리에서 스스로 "다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황당해했고, 함께 출연한 선배들은 분노를 누르느라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정작 방송에는 나가지도 못했고요. B를 잘 아는 한 연예인은 "팔방미인으로 불리고 있지만, 뭐 하나 잘하는 것 없이 자기 만족에 사는 4차원"이라고 뒷담화를 날렸습니다.

▶ 남자배우 '이성교제 주의보'

얼마 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의 사건으로 연예남자배우들이 이성 교제에 몸을 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인기가 추락할까봐 조심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 남자배우는 "요즘 남자 배우들끼리 만나면 조심하자는 말을 주고받는다"면서 "편하게 만나던 여자들과 술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고 귀띔했습니다.

▶ 박시후 측 인사에 조연 받기

한편 전 소속사 대표와도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박시후 측은 우군을 찾느라 바쁘다고 하네요. 직접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맺었던 드라마·영화 제작사 대표 등 연예계 고위 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언을 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 제작자는 "제작사 대표들로서는 나중에 캐스팅을 위해서라도 어려움에 빠진 박시후 측의 도움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고 귀띔하더군요.

/연예부

신동엽·이영자 '19금 개그' 'SNL 코리아' 최고 시청률

케이블 tvN 'SNL 코리아'가 신동엽·이영자의 환상적인 '19금 콩트'를 앞세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9일 방송은 최고 시청률 3.9%(평균 2.78% 닐슨 코리아)를 기록했다. 호스트로 나선 이영자는 19금 스탠딩 코미디와 패러디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큰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신동엽과 함께 송혜교·조인성이 주연한 SBS 수목극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패러디한 콩트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신동엽의 온몸을 더듬는 등 화끈한 성인 코미디를 선보였다.

또 조롱박 인형을 이용한 성인 콩트, 먹방 전문가 '발로 라'로 등장해 하정우의 먹는 연기를 패러디한 코너 등 다양한 소재와 캐릭터로 웃음을 자아냈다.

/유순호기자

'7번방의 선물', '광해'도 넘본다

누적관객 1200만명 돌파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상영 46일 만인 9일 전국 누적 관객 수 1205만6432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에서 4위 '왕의 남자'(1230만 명)와 3위 '광해, 왕이 된 남자'(1231만 명)을 제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700만 고지를 넘어선 '베를린'은 지난달 미국 개봉에 이어 7월 13일 일본에서도 '베를린 파일'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다.

/조성준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패키지 여행
봄맞이 HOT 세일
BEST 01 방콕/파타야 4일/5일/6일 379,000
BEST 02 캄보디아 4일/5일 349,000
BEST 03 북경 4일 159,000
BEST 04 장사/장가계/원가계 4일/5일/6일 449,000
패키지 예약상담팀 1577-1212
크루즈 여행
한·중 크루즈
STAR CRUISES 스타크루즈 제미니호
한국•중국 크루즈 4일/5일/6일
540,000부터
▶4월 16,17,20,21/6월 2,3,14/9월 26일
•4인 이상시 단체비자비 무료!
크루즈 예약상담팀 02)2127-6700

Hana free 해외 호텔
해외호텔 구매시 드리는 혜택!
1 항공+호텔 동시 구매시 호텔 10% 할인
하나투어 마일리지 10,000마일 추가적립
3 신라면세점 1만원 선불카드 증정
(2013년 6월 30일 출국까지)
4 호텔가격 천원당 10만마일 기본적립
오사카 후지야 호텔 JPY 5,620부터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USD378부터
솔즈베리 YNCA 호텔 USD169부터
해외 호텔 예약상담팀 02)3417-1212

허니문
Event
웨딩 상담만 받으셔도
50,000원 백화점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월 25일~3월 31일까지(결혼 예정인 신규고객에 한함/ 허니문 상담은 제외)
이벤트 내용 ❶H웨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후 방문하여 웨딩상담을 받으시면
5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커플당 증정)
❷상담 후 당일 계약을 하시는 고객분께는 행남자기 다과기셋트를 추가로 드립니다.
50,000원
추가 파격 혜택!!
H웨딩 웨딩패키지를 당일 예약시 적립 or 할인
선택 혜택1 50만원 상당 하나투어 마일리지 적립
선택 혜택2 20만원 즉시할인
H웨딩 허니문 고객상담팀 02)2127-1234

< 카르마 카멜레온 부른 팝스타>

보이 조지도 '울트라 코리아' 무대 선다

해외 유명 디제이 8팀 추가된 2차 라인업 공개

6월 14~15일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등에서 개최될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3'(이하 울트라 코리아)이 해외 유명 디제이(DJ) 8팀이 추가된 2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추가 라인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아프로잭이다. 2011년 그래미어워드를 수상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신의 세계적인 DJ다. 최근 출시된 싸이의 '강남스타일' 리믹스 버전에 참여한 바 있어 국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 미국 EDM의 새바람 캐스케이드,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작업해 급속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티미 트럼시, 프로듀서로 극찬받고 있는 센더 밴 돈, 페스티벌 섭외 1순위 제다 르 그랑, 트리오 크루얼라, 듀오 라이온 가이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열린 '울트라 코리아' 공연의 한 장면

특히 1980년대 전 세계 대중음악계를 주름잡던 팝스타에서 일렉트로닉 디제이로 변신한 컬처 클럽의 메인 남자 리드싱어 출신 보이 조지도 내한한다.

앞서 1차 라인업으로 헤드라이너인 아민 반 뷰렌과 아비치, 칼 콕스 등 공개해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울트라 코리아는 이로써 DJ MAG 매거진이 매해 발표하는 전 세계 DJ 순위 '톱 10' 중 6명을 국내에 초청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추가분 판매까지 1만 장이 팔려나간 얼리버드 티켓은 이미 동이 났고, 14일부터 인터파크 옥션 등에서 1일권, 양일권 등 프리세일 티켓을 판매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보이 조지

'링컨' 함께 보고싶은 명사 1위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링컨'을 함께 보고 싶은 명사 1위로 꼽혔다.

영화 예매 사이트 맥스무비가 4일부터 일주일간 네티즌 8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52.1%(426명)로 1위에 올랐다. 표를 던진 네티즌은 "하락, 나이 때문에 취업 못 하는 상황을 개선해 달라" "서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기원한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감동을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2·3위는 '국민 MC' 유재석과 '힐링 멘토' 혜민 스님이 차지했다. 각각 27.3%(223명)와 10.8%(88명)의 지지를 얻었다.

이 밖에 홍명보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각각 6.4%(52명)와 3.?%(29명)로 4·5위에 자리했다.

지난달 열린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대니얼 데이 루이스)과 미술상을 거머쥔 '링컨'은 '명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링컨의 고뇌와 결단을 웅장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린 수작이다. 14일 개봉. /조성준기자 when@

배우 유지태 연출 '마이 라띠마' 도빌 亞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배우 유지태의 첫 장편 연출작 '마이 라띠마'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제15회 도빌 아시아 영화제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다고 소속사가 10일 전했다.

영화제 측은 "감독의 뛰어난 통찰력이 예민한 소재를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수상 배경을 밝혔다. 밑바닥 인생을 사는 한 남자가 인생을 노리고 태국 여성과 결혼하면서 겪는 희망과 배신을 그린 이 영화는 5월 국내에서 개봉된다.

또디

by 정연식

<610>생의 마지막날

제군들 이번 달 리포트 제목은

'내 생의 마지막날'로 하겠네

바로 내일이 제군들 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가식없이 써 주길 바라네

교수님! 교수님이라면 생의 마지막날엔 뭘 하실겁니까?

으음 굳이 나라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지

그리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겠네

그럼, 교수님께선 죽는 순간 두렵게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십니까?

나는 교수로 ... 제자들의 스승으로 또 한 여자의 남편으로 ... 살아왔네

모두가 나를 그렇게 기억할 텐데! 당장 죽는다고 해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나? 허허허허

어 교수님 무슨 정리하세요?

wind8886@naver.com

무조건 당일 최고지급
1대 개통 94만원
무조건! 무조건
011-322-5555

metro 안내 광고문의 02-739-5807 기네스인증세계최대신문

직장인 당일 신용대출
★당사에서 바로지급★
02)771-4088

부동산 추가대출
전(월)세 계약서 대출
02)525-0228

담보,신용 대출
직장인 사업자 (신용불량자 제외)
02)2265-7498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
때론 상쾌하게 -
때론 유쾌하게 -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FX
SCREEN
FOX
DRAMA cube
FASHION N
CINE f
FOXlif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life FX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홍문정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하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7 What day is today?

요일과 달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샘플입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넌 어제 어디에 있었니?
B I went to the hospital. 내 아내가 몇 주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
A Oh, no. How is she now?
B She's better now. Thank you.

정답 Where were you yesterday? / My wife was in the hospital for several weeks.

생생영어팁

▶ When is it due?
그건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거예요?

due(~하기로 되어 있는)는 보통 기한을 말할 때 씁니다. The report is due on Thursday.라고 하면 '그 보고서를 목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기한을 묻고 싶을 때는 '이건 언제까지가 기한입니까?' 즉 When is this due?라고 말할 수 있죠. be due는 앞으로 세상에 나올 아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쓰입니다.

ex. A When is the baby due? 출산 예정일이 언제죠?
B The baby's due next month. 아기는 다음달에 태어나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 1000

01 Because of a ______ increase in profits this quarter, Tyre Sportswear employees will receive their first-ever year-end bonus.
(A) dramatically (B) dramatize
(C) dramatic (D) drama

02 No firm can ______ to rely forever only on the strength of its name to sell products.
(A) require (B) afford
(C) suppose (D) depend

01. 이번 분기의 급격한 수익 증가로 인해, 타이어 스포츠웨어 직원들은 첫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다.
해설 빈칸 앞에는 부정관사 a, 뒤에는 명사 increase가 있으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C) dramatic을 써야 한다.
어휘 increase 명 증가 profit 명 이익, 수익 quarter 명 분기 employee 명 고용인, 직원 first-ever 형 사상 최초의 year-end 형 연말의 dramatically 부 극적으로, 급격히 dramatize 동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다, 과장하다 dramatic 형 극적인, 급격한
정답 (C) dramatic

02 제품 판매에서 브랜드의 유명세에만 의존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
해설 빈칸 뒤의 to부정사와 함께 '~할 여력이 되다, ~할 수 있다'를 나타내는 (B) afford를 쓴다.
어휘 rely on ~에 의존하다 strength 명 강점 depend 동 의존하다, 되다
정답 (B) afford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Part 6. Express an opinion

선호 사항 질문 유형 파악하기

Do you prefer to change jobs regularly to build up your career or to stay with one company for your entire career? Give specific reasons and details to support your opinion.

브레인스토밍 아웃라인

[자신 입장] I prefer to stay with one company for my entire career.
저는 한 회사에서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다.

[주요 이유] Most of all, I can get more employee benefits.
무엇보다도, 저는 더 많은 직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및 근거] For example, my father has been working at the same company for 20 years.

[마무리] That is why I prefer this option.
(= That is why I prefer to stay with one company for my entire career.)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탐험의 역사 125년 ~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콘텐츠 잡지 선정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한국판으로 발행된 지 13년, 깊은 사고와 통찰력, 무한한 잠재력을 키우는 도구로 대한민국 차세대 인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YBM · NATIONAL GEOGRAPHIC 한국판 www.nationalgeographic.co.kr

박인비 유럽女골프 준우승

박인비(25)가 2013시즌 두 번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박인비는 10일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의 미션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미션힐스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써냈다. 합계 17언더파를 기록한 그는 수잔 페테르센(18언더파)에 한 타 뒤진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박인비에 2타 뒤진 채 4라운드를 시작한 페테르센은 이날 버디만 6개를 쓸어담으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양수진과 서보미가 공동 4위(10언더파)에 올랐고, '슈퍼 루키' 김효주는 공동 8위(7언더파)에 자리했다. /김현준기자

이청용 4호 AS 볼턴 5연승

블루드래곤 이청용(25·볼턴)이 시즌 4호 도움을 기록하며 볼턴의 프리미어리그 복귀에 앞장서고 있다.

이청용은 10일 열린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의 2012~2013 잉글랜드 챔피언십 37라운드 홈경기에 선발로 나서 전반 20분 마르코스 안톤소의 결승골을 도왔다. 시즌 4골 4도움으로 이날 1-0으로 승리한 볼턴은 리그 5연승을 달리며 14승12무11패(승점 54)로 순식간에 8위까지 올라섰다. /김현준기자

'구름 관중' 시범경기 맞아?

2일간 5만6천여명 운집… KIA, 한화에 2연승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 1라운드 탈락의 충격도 잠시,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열린 이틀간 5만6792명이 전국 야구장을 찾아 야구의 재미를 즐겼다.

KIA는 10일 광주경기장에서 선발 헨리 소사의 호투와 총 런 2방이 터지며 한화를 4-1로 꺾고 시범경기 2연승을 기록했다.

소사는 삼진 5개를 잡으며 5이닝을 1점으로 틀어막았고, 올해 마무리 중책을 맡은 앤서니 르루가 8회 등판해 1⅓이닝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박기남과 차일목은 각각 솔로포를 터뜨리며 타선을 주도했다. 4년간 50억원을 받고 KIA에 둥지를 튼 김주찬은 2경기에서 7타수 4안타를 터뜨리며 이름값을 했다.

한화의 새 용병 대나 이브랜드는 4이닝 5피안타 2볼넷 3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롯데는 사직구장에서 SK에 3-6으로 무릎을 꿇었다. 김시진 감독이 4번 타자로 테스트 중인 김대우는 8회 허준혁을 상대로 솔로포를 날리는 등 4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선발 송승준은 3⅔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잡아내고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LG는 8회 대거 6점을 뽑는 뒷심을 발휘해 삼성을 9-6으로 제쳤고, 9구단 NC는 장단 14안타를 터뜨리며 넥센을 7-4로 제압했다.

/김현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열린 10일 부산 사직구장이 야구 팬들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시범경기 10일 전적

팀	1-3	4-6	7-9	R
한화	000	100	000	1
KIA	002	100	10X	4

▲승 소사 ▲세 앤서니 ▲패 이브랜드

팀	1-3	4-6	7-9	R
넥센	100	010	011	4
NC	000	012	13X	7

▲승 이형범 ▲패 김상수

팀	1-3	4-6	7-9	R
LG	002	000	061	9
삼성	220	000	200	6

▲승 정현 ▲세 김선규 ▲패 김현우

팀	1-3	4-6	7-9	R
SK	000	021	201	6
롯데	000	101	010	3

▲승 최영필 ▲세 이재영 ▲패 이명우

레드냅 "중앙 선 박지성 최고였다"

2경기 연속 풀타임 QPR 2연승 견인

박지성이 2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을 펼치며 퀸스파크 레인저스(이하 QPR)의 시즌 첫 2연승을 이끌었다.

QPR은 10일 영국 런던 로프터스 로드 경기장에서 열린 2012~201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덜랜드에 3-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2일 사우샘프턴전(2-1승)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후반 32분 날카로운 크로스로 제이 보스로이드의 결승골을 어시스트(3호)한 박지성은 이날 수비형 미드필더로 풀타임 그라운드를 누볐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수비진에서 상대 공격의 맥을 끊고 공격진에 원활하게 공을 공급하는 등 공·수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맡았다.

경기 후 해리 레드냅 QPR 감독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쓰는 전술에 박지성을 중앙에 배치한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중앙에서 스테판 음비아와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며 "오늘 경기는 내가 본 경기 중 최고였다"고 기뻐했다. 영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도 "여전히 만능적했다"고 평가하며 평점 6을 부여했다. /김현준기자 mjkim@

제기차기 경쟁? 박지성(오른쪽)이 10일 영국 선덜랜드와 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세바스티안 라르손과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복코드 이벤트
오늘의 "복코드" 찍고! 화끈한 간식 타임!
★ 오늘의 상품 ★
종류: 틈새라면(컵)
당첨수량: 250개
오늘의 복코드
참여시간: 07:00~15:00
(미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 복코드 참여방법 -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복코드"앱을 다운받아 복코드를 스캔하세요

"후배들 올림픽 티켓 확보 위해"

김연아 세계선수권 도전 - 14일 밤 쇼트·17일 오전 프리 연기

'피겨 여왕' 김연아(23)가 201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김연아는 1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결전지인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으로 떠났다. 2011 모스크바 대회 이후 2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그는 11일부터 곧바로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14일 오후 11시30분 '뱀파이어의 키스'에 맞춘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하고, 17일 오전 8시에는 프리스케이팅 부문에서 '레미제라블' 연기를 펼친다.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를 비롯해 미국의 애슐리 와그너, 이탈리아의 카롤리나 코스트너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김연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큰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주고 싶다"며 "3장을 따내는 것이 목표고, 최소 2장은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연아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1~2위에 오르면 한국은 소치 올림픽 티켓을 3장 확보한다. 3~10위에 들면 출전권은 2장이 된다. /김현준기자

2013 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김연아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계시 열린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나의 금융브랜드 신한금융그룹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3-2-113호 (2013. 3. 8 현재)

재산형성의 지름길은 비과세! 종자돈의 시작은 재형저축

신한 세(稅)테크 재형저축

신한 세(稅)테크 재형저축 상품내용

- 가입자격: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고객
- 예금과목: 적립식 예금(만기일시지급식 단리식)
- 계약기간: 7년제
- 저축한도: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
- 세율적용: 7년 경과 만기해지시 이자소득세 감면, 단 농어촌특별세 1.4% 징수
- 중도해지이율: 신규 후 3년 경과 전 중도해지시 –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율 적용 / 신규 후 3년 경과 후 중도해지시 – 기간별로 적용된 약정이율 적용
- 기본이율: 신규 후 최초 3년간 신규일 당시 고시금리 적용
  ▶ 기본 연4.1%, 최고 연4.5%
  3년 경과 후 매 1년 단위로 이율 변동 적용
- 우대이율: 신규 후 최초 3년간 최고 연 0.4% 적용

신한 S-Tech 카드 상품내용

- 신용카드: 할인점/이동통신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전통할인 서비스 제공
- 체크카드: 백화점/할인점 할인
- 재형저축 저축금액에 연동된 캐시백 제공: 신용 +0.3%/체크 +0.2%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